

레위기

레위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문구가 여러 번 나오며 모세가 저자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나 모세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시의 문체에 연유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제도 및 성결한 삶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노트는 보충설명이 좀 길어진 느낌입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물의 준비과정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그 외의 설명이 부족하여 여기 저기 찾아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트

1.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동물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 (레 1) ⇒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자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2.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형식의 이름은? 화제 (레 1 등) ⇒ 번제는 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3.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곡식의 가루를 불사르거나 떡이나 과자로 구어 드리는 제사는? 소제 (레 2) ⇒ 곡식으로 드리기에 피 없는 제사이며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입니다. 곡식의 가루를 태우는 것은 화제입니다.
4.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 (레 3) ⇒ 이 제사는 화평과 친교를 위한 것이기에 제물을 바친 자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 7:15). 제사의 형식으로는 화제의 일종입니다.
5.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 놓는 제사는? 거제 (레 7:14) ⇒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다시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레 7:30)도 같은 방식과 의미로 행해졌는데 거제는 성소 밖에서 요제는 성소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6. 화목제물을 먹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부정한 자 (레 7:20-21) ⇒ 부정한 자의 정의는 7 번 참고자료 참조
7. 죄를 속해 받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속죄제 (레 4) ⇒ 속죄제물에 안수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속죄제물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레 4:2-3, 13, 22, 27)뿐만 아니라, 성물(聖物)에 대한 범죄(레 5:15), 도덕적(레 5:1, 4), 범죄(레 6:1-5), 출산(레 12), 질병(레 14, 15)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과의 접촉(레 5:2-3)으로 인해서 부정해졌을 때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도 행해졌습니다.
8.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 (레 5:17-19) ⇒ 속건제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9.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한 특별한 기름은? 관유 (레 8:30) ⇒ 관유는 상품의 향유에 몰약(발삼나무의 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 중 하나), 육계(계수나무 껍질), 창포, 계피, 감람유(올리브 기름)를 섞어서 만든 특별한 기름(출 30:23-25)으로 거룩하게만(출 30:29) 사용되었습니다.
10. 제사장 위임식은 몇 일간에 걸쳐서 거행되었나? 7 일간 (레 8:33)
11. 향로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함으로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레 10:1) ⇒ 향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내려온 번제단의 불을 담아야(레 16:12)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그들(출 24:9-11) 이지만 성막에서 지키도록 분부하신 일에 어긋났을 때 가차 없는 벌을 받았습니다. 사역자와 직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12.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몇 월 몇 일입니까? 7 월 10 일 (레 16:29-30)
13.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무엇이라 불렀나? 아사셀(을 위한) 염소 (레 16:8-10) ⇒ 속죄제로 바쳐진 염소는 그 뜻이 분명한데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 2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해석과 다른 하나는 죄를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에게 되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떠난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합성된 단어로 '(죄의 짐을 지고) 떠나는 염소'라고 보는 것과 사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원문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해석이 상반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아사셀을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장의 기록을 보면 속죄제물로 바쳐진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으며 제물로 쓰여졌지만, 아사셀 염소는 죽임도 당하지 않았고 피도 흘리지 않았으며, 아사셀 염소를 취급한 자는 옷을 빨아 입고 몸을 씻은 후에나 진영에 돌아 올 수 있었다는 것(레 16:26)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8 절과 10 절에서는 '아사셀을 위하여'로 아사셀이 목적어로 쓰여 양쪽 뜻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 절에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으로 되어 있어 아사셀이 목적어나 형용사로 쓰이지 않고 '에게'라는 조사와 함께 대상자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공통점은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 보내졌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좀 불분명할 때 영어성경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군요. KJV NIV 모두 scapegoat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4.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레 17:10-11) ⇒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실 때 이미 피째 먹지 말라고(창 9:3-4) 명하셨습니다. 특히 레위기 17 장 11 절 하단에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말씀으로 제사 때마다 뿐만 아니라 피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15.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나?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레 19:9-10) ⇒ 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 놓고 떨어진 것들도 줍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내 것을 썩썩 쓸어서 너무 잘 챙기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끼씩 금식하고 페니션교회를 후원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16. 이웃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견책하라 (레 19:17) ⇒ 그러지 않으면 같이 죄를 짓는 것과 같고, 17 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17. 이 우상에게 자식을 주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몰렉 (레 20:2) ⇒ 암몬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 인신제사를 지내던 우상으로 레 18:21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밀곰(왕상 11:5) 또는 몰록(왕상 11:7)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으며 이스라엘에까지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의 진로를 사고 이스라엘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18.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셨기에 (레 20:26)
19.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회로 지켜야 할 7 절기는? ⇒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는 절기는 좀 복잡한데 '절기'라는 단어의 뜻을 집고 넘어가면 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한글로 '절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의 2 단어를, 딱히 다르게 표현할 단어가 없길래, 구분 없이 번역한 것입니다. 첫째는 '지정된 모임'이라는 뜻의 '모에드(Mo'ed)'이고 둘째는 절기를 뜻하는 '하그(Hag)'입니다. '모에드'는 절기의 때가 강조되고 '하그'는 절기의 의미 및 특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그'의 의미로 주어진 절기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초막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 23:14-17). 레위기 23 장은 원문에 '모에드'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그'의 3 절기를 포함하여 날짜를 명시하기 위해서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 절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견해가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의거해서 알아봅니다.

- a. 안식일 (레 23:3)
 - b. 유월절 (레 23:5) ⇒ 출애굽기 문제 46 번 – 48 번과 85 번 참조
 - c. 무교절 (레 23:6-14) ⇒ 출애굽기 문제 49 번, 50 번과 85 번 참조.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을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지켰습니다.
 - d. 맥추절 (레 23:15-22) ⇒ 출애굽기 문제 86 번 참조. 주석에 따라 초실절과 맥추절이 뒤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맥추절에는 밀의 첫 수확을 바쳤습니다.
 - e. 나팔절 (레 23:23-25) ⇒ 유대력으로 7 월 1 일. 7 월은 10 일에 대속죄일, 15 일부터 7 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등 절기가 많은 달로 첫날에 특별히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노동을 금했으며 성회로 모였습니다.
 - f. 속죄일 (레 23:26-32) ⇒ 12 번과 13 번 참조
 - g. 초막절 (레 23:33-43) ⇒ 출애굽기 문제 87 번 참조
20. 7년을 주기로 6년간 땅의 소출을 거두나 7년째에는 땅을 쉬도록 명하셨는데 그 해를 무엇이라 하나? 안식년 (레 25:3-7) ⇒ 안식년에는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의 뜻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종과 가축을 포함해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먹을 것을 보장해 주었고(레 25:6-7) 종들을 해방시켜 주었으며(출 21:2)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신 15:1-2). 그런데 25 장 4-5 절에는 안식년에 파종하지도 말고 그 전 해에 거두어 드린 후에 자라난 것도 거두지 말라 기록되어 있으나 6 절에는 안식년의 소출이라는 표현이 있어 좀 헷갈립니다.
21. 7 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를 무엇이라 하나? 희년 (레 25:10) ⇒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의 해 – Year of Jubilee'인데 요벨은 양각나팔이란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고 소유물들이 원주인에게 되돌려지며 모든 땅이 쉬게 됩니다. 현대 영어에 환히 또는 축제를 뜻하는 jubilee 가 여기서 유래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49년째나 50년째나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25 장 9 절에 49년째 해(안식년)의 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것으로 되어있고 바로 다음 절에 50년째 해(희년)가 언급됩니다. 그러면 연 2년간 추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1 절에 보면 6 째 해의 소출이 3년동안 쓰기에 풍족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2 절에 8 째 해에 파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7년째가 안식년, 8년째가 희년이면 좀 안 맞지요? 여하튼 50년째를 희년으로 보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습니다.
22.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레 25:23) ⇒ 12 지파에게 토지의 분배가 있었지만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요 거류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23.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 두 동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 따로 성별하여 드릴 수가 없었다. 이 두 동물은? 소와 양 (레 27:26)